

돌아온 짝짓기 예능... '하트...' 성공에 유사프로 넘쳐

청춘 남녀 감정교류 관찰하고 연애 심리 추리하며 인기몰이

출연자 SNS서 바이럴마케팅...시청자들도 쉽게 사생활 소비

다시금 '짝짓기 예능'이 대세다. 과거 '사랑의 스튜디오' 시대를 지나 2014년 SBS '짝'의 출연자 사랑 사건 이후 한동안 지취를 감췄던 짝짓기 예능은 채널A '하트 시그널'(사진)의 성공과 더불어 재차 주목 받고 있다.

'그들만의 사랑'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시청자들은 SNS를 기반으로 그들의 관계에 적극 개입하고, 일반인과 유명인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짝짓기 예능 출연자 역시 보다 쉽게 인기를 얻는 모양새다. 출연자들은 가까이 그들의 사생활을 팔고 시청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사생활을 소비하고 있다.

시장을 마친 '하트 시그널'의 시청률은 2%대였지만 채널 시청률은 상상 이상이었다. 출연자인 송대은

은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기반으로 웹드라마에 섭외됐고, 오영주 역시 음료 CF 계약을 맺었다. 과거에는 일반인 출연자들이 짝짓기 예능을 연에게 데뷔 발판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요즘은 SNS 등에서 바이럴 마케팅이 보편화되며 그들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 결국 이런 인기는 tvN '선다방', SBS '로맨스 패키지' 등 유사 프로그램 탄생으로 이어졌다.

최근 짝짓기 예능의 흐름은 '관찰'과 '추리',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과거에는 단 1회 출연하며 준비된 질문에 답하고 장기자랑을 통해 매력을 어필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하트 시그널'은 청춘 남녀 8명이 서울 시내 주택에서 한 달간 함께 생활한다. 서로를 관찰할 시간

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로맨스 패키지' 역시 3박 4일간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서로를 관찰하는 출연진의 모습이 담긴 VCR를 통해 그들을 다시금 관찰하는 연예인 패널이 있다. 패널들은 출연자들의 언행을 보며 나름의 분석을 내놓고, 미묘한 남녀의 감정 교류와 변심에 안절부절못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 한 축은 추리다. 출연자들의 알 수 없는 속내를 헤아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청자들도 여기에 동참한다. '하트 시그널'의 출연자인 김현우가 마지막 순간,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하자 많은 시청자가 실망감을 표출한 이유다.

11일 방송되는 Mnet '러브캐처'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다.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는 이와, 가짜 사랑으로 상대를 유혹해 삼금 5000만 원을 쟁취하려는 이의 대결을 통해 짝짓기 추리 예능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연출을 맡은 정민석 PD는 "돈과 사랑이 가진 양면성을 심리게임에 접목시켰다"며 경이 다른 짝짓기 예능의 탄생을 예고했다.

'가사 전담' 남편 · '초능력자' 아내의 활약, 인크레더블2



픽사의 명작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손꼽혔던 '인크레더블'이 나온 지 무려 14년 만이다. 북미 개봉 이후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이 작품의 속편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CGV에서 공개됐다.

이미 북미에선 지난 6월 중순 개봉했고, '픽사 최고의 속편'이라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던 차였다. 무너진 그럴싸한 홍보 문구가 많기에 의심하면서도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잡은 전편의 미덕이 살아 있을지 내심 궁금했다.

거대한 세계관으로 세계 관객들을 팬덤으로 흡수하려는 최근 디즈니-픽사와 달리 '인크레더블2'는 애니메이션 평가 제작사인 픽사의 특징이 살아있었다. 캐릭터의 입체감, 재미만 추구한

게 아닌 나름의 고민과 화두가 담겨 있어 보였다.

각자의 초능력을 지닌 이 슈퍼 가족이 악당에 맞서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오락적이다. 다소 과장되고 절망적이지 않지만 지구를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미스터 인크레더블, 대의 명분보

다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일라스티컬, 사춘기를 맞은 바이올렛과 마냥 의욕에 넘치는 소년 대쉬.

이렇게 구성된 가족에 갈등 관계는 있기 마련. 1편에서의 활약에도 초능력을 쓰는 일이 불뿔이 돼버린 현실에서 2편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언뜻 마블 스튜디오 영화나 '엑스맨'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설정이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낯선 존재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습성을 속편 역시 활용했다.

법안으로 인해 손발이 묶여 버린 이들 가족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악당들을 모른 채 하며 평범한 척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며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가. 영화는 글로벌 통상 기업 데뷔 일가를 등장시킨다. 초능력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데뷔 남매는 일라스티컬을 지목하고, 그로 인해 미스

터 인크레더블은 전업 주부가 되고 만다.

가부장 사회, 남성 중심 사회를 살짝 비틀며 영화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코믹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게 녹였다. 익숙하지 않은 가사일에 답답함을 느끼는 미스터 인크레더블과 히어로 임무를 수행하며 통쾌함을 느끼는 일라스티컬을 대비시키며 영화는 진짜 이들에게 다가올 위기를 제시한다.

진근하게 접근했던 데버가 빌런(악당)이다. 영화는 몇 가지 반전 코드를 넣어 이 초능력자 가족에게 닥친 위기를 묘사했다. 데버의 명령을 따르게 된 이 초능력자 부부,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위기에서 빼내려는 바이올렛과 대쉬의 활약이 이 영화의 핵심이다.

또 하나, 전편과 다르게 세롭게 등장한 캐릭터가 있으니 바로 초능력자 가족의 막내로 태어난 짝퉁이다. 이제 갓 말을 알아듣는 짝퉁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묘사하며 영화는 흔히 말하는 '영화 흥행 코드'를 짝퉁에 쏟아냈다. 귀여운 모습에 웃음을 유발하는 짝퉁의 행동은 많은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초능력이 짝퉁에게 있음을 발견하며 이후 이어질 또 다른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할 것이다.

전편을 능가하는 속편이 없다는 영화계 속설은 '인크레더블2'에서 만큼은 통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 할리우드가 줄곧 묘사해왔던 가족주의에 더해 소수자 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민이라는 최근의 사회적 문제를 녹였다.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으려 했고, 그 의도가 보기 좋게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뒤바뀐 월화극 왕좌, 활짝 웃는 MBC · 자존심 구긴 KBS



지상파 월화극 왕좌가 뒤바뀌었다. 현재 방영 중인 MBC 월화드라마 '검법남녀'(연출 노도철, 극본 민지은 원영실)가 1위, SBS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극본 서수향, 연출 박선호 함준호), KBS 2TV 월화드라마 '너도 인간이니?'(극본 조정주, 연출 차영훈 윤종호)가 차례대로 그 뒤를 따른다.

지금에야 지상파 월화드라마 1위 '검법남녀' 2위 '기름진 멜로' 3위 '너도 인간이니?' 체제가 굳어졌지만 처음부터 이 순위였던 건 아니다. 지난 5월 14일 처음 방송한 '검

법남녀'를 당시만 해도 4%대(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로 동 시간대 꼴찌의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굳건하게 월화극 왕좌를 지키던 KBS 2TV '우리가 만난 기적'과 서수향 작가의 신작 '기름진 멜로'가 화제를 모으던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검법남녀'는 법의학을 소재로 한 밀도 있는 스토리와 정재영을 중심으로 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세밀한 연출로 극 몰입도를 높였다. 작품성으로 입소문을 탄 '검법남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청자를 모았고 방송 4주 만에 월화극 1위로 올라섰다. 이후 2018 러시아 월드컵 경기 생중계로 인한 결방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KBS는 '너도 인간이니?' 방영 이후 자존심을 구겼다. 지난달 4

일 처음 방송한 '너도 인간이니?'는 인간과 로봇의 사랑을 다룬 '로맨스 스' 드라마인 데다 인기를 구가하는 배우 서강준이 출연해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은 작품이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너도 인간이니?'는 1회 5.2%, 2회 5.9%의 시청률을 보이며 월화극 꼴찌로 출발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9일 오후 방송된 '너도 인간이니?'는 17회 4.3%, 18회 5.2%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것 없는 진부한 스토리, 트렌드에 뒤쳐진 설정 등으로 인해 후평을 받고 있어 하락세로 들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기름진 멜로'는 '집부의 화신'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서수향 작가의 신작으로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으나, 예상보다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드컵 여파로 타사 드라마가 결방했을 때 잠시 동 시간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이후 월화극 2위를 유지하는 중이다.

Mnet 신개념 예능 '방문교사' 런칭

Mnet이 오는 8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스타 연예인이 일반 학생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 직접 찾아가는 신개념 교육 콘텐츠인 '방문교사'를 제작, 편성하는 것.

요즘은 스타를 좋아하는 것이 공부를 방해하는 골칫덩이인가 아니라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실제 작년 수능 만점자 학생 중 한 명은 '전소

미'의 팬임을 자처하며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만점 비결을 본인인 '좋아하는 스타' 덕분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그룹 '위너'의 팬 사인회에서 "서둘러에 합격해 과점 퍼를 입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팬이 실제 입학해 자랑스럽게 교수와 재회했다는 일화도 온라인에서 화제된 바 있다.

Mnet '방문교사'에서는 이처럼 학생들의 동기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스타 교사가 직접 공부도 가르쳐주고 인생의 선배로서 멘토도

되어 줄 예정이다. 스타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성적 향상을 위해 충실한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좋은 취지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슬픈 결말이 달칠 수 있다. 학생의 성격이나 방문교사의 열정이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업 후 해고 당할 수도 있는 것. 스타 교사와 학생이 멋진 호흡으로 지속 가능한 연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거리다. 오는 8월 첫 방송.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음력 5월 29일)



▶**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돈을 잡지 마라. 1, 3, 10월생 미혼자는 안갯속에서 헤매지 말고 잡으려면 확실히 잡자. 상대 또한 분명히 선 긋기를 바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4, 6, 8월생은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라도 마음을 열어주고 급히 서둘러 하는 일이 중단될 수 있다.



▶**띠** 주먹구구식 사업은 현실성이 없음을 빨리 인식하라. 7, 8, 9월생은 더 실력을 배양하고, 확고한 계획 아래 시작하라. 4, 6, 8월생은 마음이 급하고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렇다고 급히 서둘러 하는 일이 중단될 수 있다.



▶**띠** 처음 시작할 때는 계획과 구상이 거창했으나 결실을 못 이루고 있다. 끝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논하기 힘들다. 1975년 2, 5, 7월생 엉뚱한 곳에 신경 쓰지 말고 금쪽같은 시간을 아껴 쓰라. 만족하지 못해 포기하면 퇴보할 뿐이다.



▶**띠** 4, 6, 8월생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내 인생을 내가 대신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용기를 가지라. 1, 6, 12월생 실재를 두 번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너무 믿지 말고 파악부터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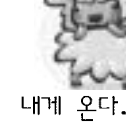
▶**띠** 사는 동안 명예와 부를 누리니 부러운 자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2, 5, 10월생 고독은 해결할 수 없구나. 애정과 자식 때문에 고민한다. 부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상기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방향인지 스스로 생각하라.



▶**띠** 사소한 일이 쌓이고 쌓이니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생길 수 있다. 7, 8, 9월생 쥐, 돼지, 범띠와 갈등에서 벗어나라. 옛것에 얽매이지 마라. 서로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단 생각을 하면 위험한 순간이 닥쳐올 수 있다. 자기관리에 힘쓰라.



▶**띠**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음을 알라. 1, 6, 9월생 넘지 못할 고개를 넘어라 하지 마라. 분노도 모든 채 마음을 두 곳에 둔다면 살얼음판 위를 걷는 생활이 지속한다. 단 데 신경 쓰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과 한마음이 되도록 힘쓸 때 가정에 웃음꽃이 핀다.



▶**띠** 4, 6, 8월생 내 고집만 내세우면 뛰어도 실속 없고 심신만 피곤하다. 1, 8, 12월생 모든 미움이 싹트려 원망하는 격이니 편모 눈치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의 운이 내게 온다.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일만 생각하며 괴로움을 접어두라.



▶**띠** 음식업 불황이라 고전하는 격이다. 7, 8, 9월생 씨는 이전해 방향을 바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 사소한 일을 시작해도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 1, 2, 7월생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만 신경 쓴다.



▶**띠** 4, 6, 8월생 물욕을 너무 크게 부리면 사람도 모르고,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돈과 사람 비교는 금물이다. 5, 8, 9월생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며 동업을 시작했지만,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는다.



▶**띠** 2, 5, 10월생 문서나 보증을 서면 가진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도장을 함부로 찍지 마라. 노란색 계열 옷은 길하다. 하는 일을 변동하려고 하지만 용기가 뒷받침 없이 결정하지 못한다. 동북쪽 사는 말, 닭띠 조언을 들으라.



▶**띠** 7, 8, 9월생 자녀 탓에 근심한다. 품 안의 자식이 아닌 만큼 의사를 존중해 대화로 차근차근 풀어라. 현재 내 직업에 만족하기는 힘들다. 2, 7, 9월생 순간을 잘 넘기면 마음이 안정된다. 서, 북쪽이 길하다.